

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58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5월 26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II . 제안이유

- 가. 본 시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 올바른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노동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·지속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으로
- 나. 기존 1층 시민전시장을 카페로 개편하여 시민 친화적인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, 시설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
- 다.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 제3자 재위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III . 주요내용

- 가. 제3자 재위탁 시설명: 전태일노동복합시설 내 1층 카페

나. 제3자 재위탁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제5항

다. 제3자 재위탁 개요

- 시설명 :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 1층 카페(204.54㎡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(관수동 152-1)
- 본수탁자 : 재단법인 전태일재단(' 24. 11. 1. ~ ' 26. 10. 31. / 2년)
- 제3자 재위탁기간 : ' 25.6.30. ~ ' 26.10.31. / 1년 4개월
- 수탁자 선정방식 : 일반경쟁입찰(온비드)
- 소요예산 : 95,016천원(' 25년 예산편성액)

I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1층 일부공간을 카페로 조성하고 카페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¹⁾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개요 및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추진경위

- 전태일 노동복합시설(이하 “시설”)은 2019년 개관하여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노동문화 인식과 노동문화 개선을 위한 기획전시, 소장품 전시, 노동운동기록, 교육, 문화공연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<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현황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 명: 전태일 노동복합시설(전태일기념관) ○ 위치: 종로구 청계천로 105(관수동 152-1) ○ 규모: 지상 6층, 연면적 1919.53㎡ / 대지면적 553.1㎡ 			
구분	면적	용도	
계	1,919.53㎡		
1층	392.96㎡	전태일 기념관	전시장, 수장고1, 장애인 화장실, 주차장, 기계실 등
2층	369.86㎡		다목적홀, 수장고2, 휴게실
3층	409.09㎡		상설전시실, 기획전시장
4층	409.09㎡	교육실, 세미나실, 회의실, 갤러리 덩이	
5층	266.08㎡	사무실(서울노동권익센터, 2025년 3월 퇴거)	
6층	72.45㎡	옥상, 휴게실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탁기관: 재단법인 전태일재단(대표: 박승흠) ○ 2025년 예산: 900백만원 			

- 동 시설은 지난 3년간의 실적으로 전시 관람객 63,819명, 노동인권교육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~ ③ (생략)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(생략)

13,145명, 노동역사 자료수집 272건, 공연장·회의실 대관 684건 등을 보고 하였음.

<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업 추진실적 >

구분	합계	2022년	2023년	2024년
전시 관람객(명)	63,819	17,425	22,541	23,853
노동인권교육(명)	13,145	4,085	4,579	4,481
노동역사 자료수집(건)	272	176	41	55
공연장·회의실 대관(건)	684	59	288	337

- 그러나 동 시설은 제한된 전시 주제, 낮은 접근성,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2024년도 일평균 관람객 수가 76.7명²⁾³⁾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특히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는 동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▶1·2층을 카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, ▶G밸리 산업박물관과 공동 수장고로 활용하는 방안, ▶G밸리 산업박물관과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바 있음.
-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.
 - 먼저 동 시설의 1·2층 전체를 카페로 조성할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의 40% 이상이 카페로 활용되어 건물의 설립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, 예상 임대료가 연간 약 3억 8천만원⁴⁾으로 추정되어 장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음.

2) 2024년 전시관람객(23,853명) / 개관일(311일)

3) 전시 관람객을 포함한 시설의 일 평균 방문객은 2024년 기준 115명임.

4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산출한 추정치임.

- 다음으로 G밸리 산업박물관과의 공동 수장고로 활용하는 방안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자료 접근성, 보존 상태 차이, 관리 시스템 구축, 이송과정에서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.
- 마지막으로 G밸리 산업박물관과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양 시설의 소장 자료 교류 및 기획전시·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의 협력 사업을 검토할 계획임.
- 서울시는 이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동 시설의 1층 일부 공간(204.54㎡)만을 카페로 조성하고 그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는 내용의 동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.

3.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의 적정성 검토

- 동 동의안은 동 시설 내 1층 일부공간을 카페로 재구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기에 앞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는 1층 시민전시장 공간을 카페로 재조성하고 16개월(2025.6.30. ~ 2026.10.31.)간 제3자에게 사용·수익하도록 재위탁할 계획으로⁵⁾, 제3자는 최고가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되며, 재수탁자로부터의 사용료는 모두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임.
- 또한 동 시설의 고유 캐릭터인 풀팽이를 이용한 굿즈 개발 및 태일컬처 데이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, 카페와 시설의 고유 기능을

5) 제3자 재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 시설의 본 위탁기간(2024.11.1.~2026.10.31.) 기간 내로 제한됨. 다만 제3자 재위탁 유사사례인 '서울남산국악당' 카페테리아의 경우 본 위탁이 재계약될 경우 제3자 재위탁 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음.

연계할 계획임.

- 이와 같이 시민전시장을 카페로 재구성하는 것은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객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했던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.
- 특히 카페 방문을 목적으로 유입된 시민들이 동 시설의 전시 관람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, 결과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관람객 및 체류 시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 당초 시민전시장이 수행하던 기능은 2층 공연장 앞 시민 휴게 공간을 시민 갤러리 등으로 전환하여 유지될 계획이므로 이는 공간 재구성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.
- 다만, 제3자 재수탁기간이 16개월(2025.6.30. ~ 2026.10.31.)에 불과하여 카페를 안정적으로 조성·운영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.
- 또한 연간 사용료와 매출이 각각 1억 5,000천만원⁶⁾과 2억 1,600만원⁷⁾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고려할 경우 카페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

6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산출한 추정치임.

7) 25일(한달 평균운영일수) × 120명(예상 방문객) × 6천원(평균단가) × 12개월